

## 해외 최초 한인교회, 동성애 문제로 교단 탈퇴 의지

호놀룰루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투표 불발에도 탈퇴하겠다"

호놀룰루에 위치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가 최근 연합감리교단 내에 불거지고 있는 동성애 합법화 우려에 대응하여 교단에서 제시한 한시적 교단법 조항인 장정 2553에 의거하여 교단을 탈퇴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 주일(3/26) 교인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참석교인 2/3 동의를 얻지 못 함으로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원하고 있는 교단탈퇴는 내년 4월 교단 총회 이후에 미뤄지게 됐다.

미국 연합감리교단 가주태평양 연회는 동성애 합법화 움직임에 반대하며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교단을 탈퇴할 수 있도록 한시적 교단법(장정 2553)을 만들어 금년 말까지 탈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조항은 올해 12월 30일부로 효력이 제한되고 세부조건도 현실적이지 않아 각 교회마다 찬반을 놓고 고민을 해왔다.

그 조건을 보면 교인총회 참석교인 2/3 동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의를 얻어야 하고 2년치 연회 분담금, 목회자의 미지급 은퇴연금, 교회 전 재산의 50% 등을 교단에 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경우 천만 달러(재산세 공지가 기준) 이상의 비용을 금년 12월 30일까지 일시불로 지불해야만 탈퇴를 할 수 있다.

반면 내년 4월 열리게 될 교단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또 다른 분리안인 "은혜로운 분리

안" 이 총회를 통과할 경우 탈퇴를 원하는 교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교단을 탈퇴할 수 있지만 진보성향의 대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많은 연합감리교회들은 내년 총회에서 또 다른 현실적인 분리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의명을 요청한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의 한 장로는 "이번 교인총회의 결정은 교단에서 제시한 한시적 조항인 장정 2553에 의하여 처벌적 조건을 감수하고자도 금년 안에 교단을 탈퇴할 것 인가를 결정하는 투표이지 동성애에 대한 찬반 투표도 아니고, 교단 잔류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도 아니다"라며 "우리 교회는 단호히 동성애 반대를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교단 총회 이후에 탈퇴가 추진될 것이지만 시기와 방법은 총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탈퇴 조건도 아직은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는 미주 한인 이민 원년인 1903년에 세워진 해외 첫 번째 한인 교회로 올해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는 미주 한인이민 역사의 발원지이자 37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대한민국의 해외 독립운동 사회적 이기도 하다.

이날 특별 교인총회는 연합감리교회 하와 이지역 이민영 감리사가 주재하였으며 세례 등록교인 1,150명중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민선 기자

## 美 주요 매체들, 내슈빌 총격에 '기독교', '트랜스젠더' 언급 기피

"기독교를 성소수자 공동체의 위협으로 묘사한 것과 대조적"

최근 미국 내슈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보도에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사용한 미국 주요 매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법무부가 얼마 전 뉴욕주 버팔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증오범죄이자 인종 차별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과 극명히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뉴욕 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시카고트리뷴까지 모두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언약학교'를 '기독교 학교'라고 언급하는 것을 피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가 3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내슈빌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내슈빌에 거

주하는 28세의 오드리 헤일로 밝혀졌다. 헤일은 이 학교 출신이고, 트랜스젠더로 알려졌다.

당국은 헤일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소총 2정과 권총 1정으로 무장한 채 내슈빌의 그린 힐스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 들어 왔고, 이후 경찰의 총격을 받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건 직후 전국 신문은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WP는 '내슈빌 학교 총격 사건으로 6명 사망', 시카고트리뷴은 '내슈빌 학교에서 총격으로 6명 사망', WSJ는 '내슈빌 초등학교에서 총격 6명 사망'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NBC뉴스 등 다른 매체들은 용의자에게 '트

랜스' 또는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3월 28일 헤드라인에서는 '기독교'나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NBC뉴스는 한 보도에서 헤일이 트랜스로 식별된다고 살짝 언급했으며, "관계자들은 그것이 이 사건에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전히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기사는 또한 생물학적 여성인 헤일로 대해 성중립적 대명사인 '그들'(they)을 사용했으며, 헤드라인에 "분함이 총격을 촉발했을 수 있다"고 썼다.

CBS뉴스는 처음에 총격 사건이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 발생했으며 '총격을 가한 용의자도 사망했다'고 보도한 후, 트윗을 업데이트하며 "여전히 헤일의 성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29일 현재 CBS뉴스의 주요 기사에는 헤

일의 트랜스젠더 정체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신 헤일이 27일 공격 이전 5개 매장에서 7개의 총기를 구입했다고 알려진 부분만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 크리스포스트(CP)는 "최근 몇 달 동안 많은 국내 언론 매체가 기독교인을 성소수자(LGBT) 공동체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를 지적했다.

CP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한 언론의 이러한 반응은, 연방정부 관리들이 아직 언약학교 총격 사건을 증오 범죄로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뉴욕주 버팔로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증오범죄이자 인종 차별적 행위'라고 표현한 것과 극명히 대조적으로, 내슈빌 총격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현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17-22

**OC교계연합 부활절 특별새벽예배**

2023년 4월 9일 주일 새벽 5시30분  
**소스몰 1층 계단식 야외극장**  
694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주제 :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라  
말씀 : OC교협 회장 심상은 목사(갈보리선교회)  
찬양 : 은혜한인교회 2부찬양대, 소망소씨이머티어여성중창단  
축사 :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신원규 목사(교협 이사장 좋은마을교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공동주최기관 :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여성목사회, OC 장로협의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Refounder's United  
미디어협찬 :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CHTV, 사람과사회(People&Society)  
미주크리스천신문, 기독일보, 크리스천비전

# 라크마 합창단, 고난주간 찬양집회로 깊은 '감동' 선사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승리 노래

라크마 챔버 합창단(단장 최승호·음악감독 윤임상)이 고난주간을 맞아 찬양 연주회를 개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깊은 감동으로 연주했다.

지난 2일,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에서 진행된 연주회에서 라크마 합창단은 풍성한 화음과 진한 신앙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죄인을 위한 대속의 사랑을 노래했다.

이날 전문 합창 기술과 예술적 감성을 통해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인 라크마 합창단은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참석자들의 마음을 귀를 사로잡았다.

참석자들은 "라크마 합창단의 연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깊은 의미와 예



음악감독 윤임상 지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수 그리스도의 한 없는 사랑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모든 연주곡들을 통해 큰 위로를 받은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호평했다.

이날 골로새서 2장13-14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김경섭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생명을 주시는 완벽한 구원이었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 독려했다.

김 목사는 이어 "너무도 귀한 라크마 합창단을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자"고 감격을 전했다.

연주회 지휘를 맡은 음악감독 윤임상 감독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평안을 누리시는 시간이었다"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완성이기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뜨겁게 찬양하는 라크마 합창단이 될 것"이라고 연주회 마칩 소감을 전했다.

김동욱 기자

## OC 기독교전도연합회,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과 난민을 위해 특별후원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린 OC기독교전도연합회 4월 조찬기도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1일(토) 에반겔리아대학교 채플실에서 2023년 4월 정기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이번 조찬기도회 말씀 강사로는 최근 지진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 노광조 선교사가 초청됐다. 노광조 선교사는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파송선교사로 튀르키예에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지역에서 넘어온 난민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던 중 이번 감사한인교회 선교대회 참석을 위해 방문하게 됐다.

'하나님의 요구 (마 25:14-2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노광조 선교사는 말씀에 앞서 튀르키예 지진 상황을 설명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의 참상을 보았지만 이번 지진은 거기에 비할 정도가 아니었다. 모든 건물 이 반대편처럼 납작하게 무너진 것을 보고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됐다"

고 튀르키예 지진의 실상을 소개했다. 이어서 연합회는 한국과 미국,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지진 이재민과 우크라이나와 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 OC 지역사회와 교회, 목회자와 해외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합심으로 드리고 서문준 이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1부 기도회는 신용 회장의 사회, 한성준 부회장의 대표기도, 튀르키예 노광조 선교사의 말씀, 서문준 이사의 마무리 합심기도에 이어 노광조 선교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연합회는 이날 모금한 현금 1500불을 전액 튀르키예 지진 이재민과 난민을 위해 후원하기로 했다.

2부 교회소식 및 교계소식은 윤우경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 윤 이사장은 교계소식으로 1) 부활절 OC교계연합예배가 4월 9일 부활주일 아침 5시 30분에 부에나파크에 있는 소스몰 1층 계단식 야외극장에서 열린다고 광고하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2) 대지진 구호기금마련운동이 목표액 10만 불을 넘겼다고 소개하고 9일 저녁에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를 포함한 대표단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올해부터 조찬기도회 순서지를 예배순서 뿐만 아니라 교계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많은 교회와 평신도들이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튀르키예 노광조 선교사의 이날 설교는 OC기독교전도연합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info@ockca.org 유튜브 채널: OC기독교전도연합회

김민선 기자

## GOODTV부흥사협의회, 미주성령충만대성회 성황리 개최

GOODTV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김용희 목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주지역 복음화와 멕시코 선교를 위해 미주성령충만대성회를 개최했다. GOODTV부흥사협의회 회원들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1박 12일 동안 미주지역과 멕시코 엔세나다를 다녀왔다.

지난달 취임한 GOODTV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김용희 목사와 회원들은 미주지역의 첫 사역으로 미주 대한신학대학교(총장 류당열 목사)에서 예배와 세미나를 인도했다.

류당열 목사의 인도로 드린 예배는 우상배 목사(영광교회)의 기도, 김용희 목사의 설교, 성권상 목사(행복한교회) 축도로 진행됐다. 이후 김용희 목사가 미주 대한신학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성권상 목사가 명예선교학박사, 김애영 단장(이음선교단)이 기독교교육학 명예박사를 받았다.

김용희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눅 17:20~2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지난 2



김용희 목사가 미주 대한신학대학교에서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월부터 시작된 애즈베리대학교의 대부흥운동이 미주 전역으로 퍼지고,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 이제 엔데믹 시대에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순서를 마치고 함께 만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강혜진 기자

# 제8기 가정선교 세미나

1. 주 최 : 미주 가정선교회

2. 일 시 : 2023년 5월 6일 (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3. 장 소 : 생수의강 선교교회  
19200 Pioneer Blvd, Cerritos, CA 90703

4. 참가비 \$50.00(성인부부) 점심식사 제공  
\$30.00(목회자부부,싱글)

5. 강 사 : 이재근 목사 (미주 가정선교회 대표, Ph.D)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쿨란) 저자

6. 강의내용: 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 해결방안

7. 기타 안내

- (1)참가신청은 이메일(jaekunlee00@hotmail.com)이나, 전화(562-714-0691)로 하시면 신청서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2)신청서나 수표를 보낼 경우 Pay To 를 LLMC로 명기하시고, Rev. Jae Kun Lee (11908 Centralia Rd. #102, Hawaiian Gardens, CA 9071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비전신문, 기독교보 목회자아버지학교, 주사랑선교회, 생수의강 선교교회

# 김양재 목사, 미주 THINK 목회세미나 부흥집회 성료

“혼자 미국에 갔지만 성도들의 살아난 이야기와 함께 갖기에 이에 호응해주는 교회들이 미국에서 팔복산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김양재 목사(큐티선교회 이사장)가 지난 3월 5일부터 3주간 미국 서부 6개 교회에서 목회세미나와 집회를 인도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는 미국 남가주 ANC 온누리 교회에서 제2회 THINK 목회자세미나와 부흥집회가 열렸다. 이 기간 집회엔 50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했다.

김 목사는 자신의 간증과 성도들의 말씀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 큐티사역의 열매를 소개했다. 그는 “큐티책이 예수 믿게 하는 책이 된다. 아이, 어른에게 안식처가 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니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끊임없이 전도가 된다”고 전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미주 지역 교회에도 큐티 운동이 시작되는 새로운 도전의 바람이 불었다”고 했다.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 담임)는 “큐



QTM의 미주 목회 세미나 성료 ©주최 측 제공

티인에 실린 간증을 통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되었다. 모든 수치를 다 내어놓으니 사람들이 도망가야 하는데, 복음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해주셨다. 말씀 하나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것을 우리들교회를 통해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담임)는 “이번 집회를 통해 말씀 목상에 대해 새롭게 도전 받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말씀 목상 운동이 건강하고 활발하게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최 측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라며 “우리들교회와 큐티선교회는 인구절벽 시대에 말씀 목상을 통하여 가정 회복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매주 주일예배에서 말씀으로 살아난 성도들의 간증이 전해지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재단법인 큐티선교회에서는 매년 5월과 10월 두 차례의 THINK 목회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선 오는 5월 22-25일까지 제16회 THINK 목회세미나(이하 ‘목세’)가 경기도 성남 우리들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모집인원은 200명. 비숙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접수는 4월 3일부터 30일까지, 참가비는 15만 원이다.

아울러 세미나 신청에 앞서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었다. 참가 신청은 개편된 홈페이지 qtm.or.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031-705-5360.

노형구 기자

## UMC 한인교회 ‘미래 컨퍼런스’ 열린다

### 한인연합감리교회 방향과 미래 논의, 4월 10일 웨비나

한인목회강화협의회(회장 정희수 감독, 이하 한목협)는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왕하 10:15)라는 주제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웨비나 “UMC 한인교회 미래 컨퍼런스”를 부활절 다음날인 4월 10일 오후 3-5시(미동부시간)에 개최한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는 미국 내 교인 수만 640만 명이며, 전 세계 교인은 1,300만 명에 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인간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지리한 논쟁을 해결하고, 신학적 입장에 따른 교단 분리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었던 2020년 총회가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면서, 지난 해 5월 교단 내 보수적인 그룹인 웨슬리언협회(Wesleyan Association)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감리교회가 출범했다.

또한 2019년 총회가 미국 내 교회들이 교단의 신탁 조항에서 벗어나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교단을 떠날 수 있는 한시적 특별 조치인 장정 2553을 승인한 이후, 미국 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그 법을 근거로 교단을 탈퇴하고 있다. 루이스센터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미국에 기반을 둔 연합감리교회의 약 6.6%에 해당하는 1,967 교회가 교단을 떠났으며, 앞으로도 적지 않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다.

연합감리교뉴스가 비공식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40 교회의 약 15%에 달하는 교회가 교인총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의결했거나, 교인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을 탈퇴하려는 한인 교회 중에는 대형 또는 중대형 교회가 적지 않아 교인들 기준으로는 약 25-30%의 한인연합감리교인이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단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의결했지만, 연회가 설정한 교단 탈퇴 기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자기 교회 신앙고백의 의미나 연회로부터 우호적인 탈퇴가 허용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교인총회를 여는 교회도 없지 않아 최종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는 수는 더 적어질 수도 있다. 다만 이렇게 교단 탈퇴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는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목협은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 교회와 교단의 미래를 가능하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며, 한인 교회를 강화하기 위한 선교 전략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웨비나를 개최한다.

한목협은 초대 글에서, “우리 신앙의 터전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연합감리교회의 고된 여정을 지켜봐오만 했습니다. 올해는 이 문제가 일단락 지어질 예정이어서 다가오는 부활절은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어떤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웨비나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번 웨비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위스컨신 연회의 정희수 감독은 ‘교단의 비전과 협력’이라는 제목으로 교단의 비전에 대하여, 와싱턴 사립학교 담임인 김영봉 목사는 ‘남은 자들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한인연



합감리교회의 사역 방향을, 지난 1월 1일부터 동북부 한인선교구를 섬기고 있는 안명훈 선교감리사는 ‘다양성 속의 연합과 일치’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분열을 뛰어넘어,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목협의 사무총장인 장학순 목사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현황과 미래’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며 교단과 한인 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고은영 목사(투산제일 연합감리교회 담임), 권혁인 목사(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담임), 강혜경 목사(감리교신학교 객원 교수), 조선형 목사(시카고 예수사랑교회 담임) 등이 “나는 왜 아직도 연합감리교인인가?”, “2024년 교단총회에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한인교회에 바라는 소망 한 가지” 등의 주제를 놓고 패널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목협 사무총장인 장학순 목사는 “한인 교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보다더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기 위해 패널리스트 선정에 신경썼다.”라고 말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강화협의회는 “내 마음이 당신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왕하 10:15)라는 주제로 연합감리교회 한인교회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웨비나 “UMC 한인교회 미래 컨퍼런스”를 주최한다.

이어서 장 목사는 “남은 한인 교회들이 보이스를 모아야 한다는 필요성과 탈퇴 이후 한인 교회의 방향과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소하고, 파악된 현 상황을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며, 한인 교회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할 것이다. 한인 교회들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쉽다. 하지만 그들의 탈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축복하지만, 이제는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예산을 집중하고, 목회자와 교회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선교와 목회를 구상하고, 비전을 나눌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인 공동체의 활성화와 연대를 위해 2019년 대면 모임과 2020년 화상 모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한인총회의 재건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선 기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여!

## He is Risen!

LA Hanmi Church  
나성한미교회

Since 1983  
**창립 40주년**

장소 나성한미교회

나성한미교회 제7대 홍충수 담임목사  
**담임목사 취임식**  
성경 말씀의 진리 기둥과 터 위에 [디모데후서 3:15]

“부름 받는 공동체 & 세움 받는 공동체 & 보냄 받는 공동체”  
홍충수 목사

일시 2023년 4월 9일(주), 오전 10시 30분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 (626) 444-0058 | LAHANMICHURCH.COM

# 한기총 부활절 메시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 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2023년 부활절 메시지를 31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이 메시지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이고,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길이었다”며 “미움과 시기, 원망과 배반으로 시작된 죽음(殺)의 자리였지만, 그 모든 죄악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감당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며 스스로 죽음(死)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한기총 제28대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CHTV 김상고 PD

고 했다. 이어 “사랑은 약해 보인다. 어둠으로 떠난 제자를 붙잡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도 모두 떠나 아무도 남지 않았다. 저항할 수 있고, 피해갈 수도 있음

에도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라며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성찬의 예식과 같이 주님의 찢김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될 때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 온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한기총은 “최근 논란이 된 이단 사이버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을 이용하고 빼앗는 것이다. 불의하고 거짓되며,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며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응답하지 않을 때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

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가득한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다. 아울러 “교회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가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교회가 되고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자”며 “배고픈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불안해하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했다.

김진영 기자

## JMS 2세, 탈퇴... 부모에게 “지옥 보여주마” 협박받기도

### MBC '실화탐사대' 서 사연 전해 “새 인생 위한 도움 필요”

MBC '실화탐사대'가 30일 JMS(기독교복음선교회) 2세들의 사연을 전했다. 방송에서 가명으로 출연해 자신이 JMS 2세라고 밝힌 박 씨는 “많이 무서웠다. 너무 무서웠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JMS를 나왔다”며 “저희 집에 돌아다니다 보면 다 정명석 얼굴이었다. 온 집안 자체가 정명석으로 물들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또 JMS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이유를 ‘가족’ 때문이라며 “나오려면 가족을 버려야 된다”고 했다.



©MBC '실화탐사대'

박 씨는 “한번은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걸린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남자친구한테까지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어머니는 딸에게 “그러고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지 보자”, “니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간 것처럼 살아 있는 지옥을 보여 주지 절대 조직생활을 못할 거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패널들은 “너무 무섭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JMS 2세는 “섭리에서 운영하는 호텔에서 정명석과 면담을 진행했다. 방에 들어갔더니 1대1로 면담을 했다. 정명석이 갑자기 ‘일어서 보라’고 해서 손의 맥을 짚어 보더니 ‘건강검진을 해주겠다. 한바퀴 돌아 보라’고 해서 돌아오니 갑자기 내 뒷모습을 보면서 ‘ 좋네’라는 말을 했다. 잘못 들었나 싶었다. 정명석이 갑자기 끌어당기더니 스타킹 안에 손을 넣더라. 자궁 검진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성폭행당한 일을 폭로했다.

끝 수도 없는 과거다. 저의 부모님은 월 30 만원을 받으면서 저와 오빠를 키우고 그 누구보다 착하게 사셨다. 다만 착한 것과 진실을 보는 눈을 갖는 건 다른 말”이라며 “불행 중 다행으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주를 만나본 적도 없고 크게 관여한 바는 없었다. 그리고 점점 머리가 커가며 스스로의 자아가 생기고 독립했다. 사실을 알리고 용기를 내 이런 중요한 다큐(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만들고 출연해 주신 분들께 저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이 글을 쓰게 됐다. 이곳에서 태어난 2세들과 교인들은 성폭행을 피해가더라도 계속해서 세뇌와 죄의식 속에서 자란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는 물론 미디어로부터도 단절되

고, 이성과는 단둘이 어디든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섭리에서는 상륙(스타)들을 엄청 아끼고 우월감을 불어 넣는다. 스타는 리더가 될 수 있다”며 “스타는 기쁨조의 느낌으로 꾸린 것 같다. 정명석 같은 사람이 가장 원했던 건, 나를 신으로 믿고 고귀하고 순결하게 큰 아이를 신부로 삼기도 하는 걸 원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JMS 2세인 DKZ 경윤, 배우 강지섭 등이 JMS를 탈퇴했음에도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2세들한테 JMS에서 나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싶다. 저희가 피해자라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도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올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JMS 2세 B씨는 “JMS라는 종교에서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 안 되고, 애인을 떠나 소위 말하는 남사친·여사친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한다”며 “문화, 노래, 예능, 음란물, 자위 행위까지 다 체크한다”고 했다. B씨는 “무서운 것이, 지금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도 세뇌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 ‘내가 메시지를 배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직도 조금 있다”고 했다. 이들이 제공한 30가지가 넘는 JMS 교회 지침서에는 “이성행위, 자위행위, 만지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잊으면 죽는다”, “가정국과 장년부는 자녀 관리를 잊으면 죽는다”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 JMS에서 ‘스타(상록수)’로 활동했던

노지민 상담사(前 연세상담코칭지원센터)은 “이 아이들한테는 이곳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다. 이 아이들은 그 안에서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의 법을 따른다. 이게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기 전부터 이 생각들이 반복적으로 교육되고 주입됐기 때문에, 오히려 깨달아서 알고 나오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유명 빵집의 송성례 대표가 출연했다. 송 대표는 얼마 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이 JMS 2세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송 대표는 “저는 JMS에서 태어난 2세다. 이걸 제가 지을 수도 없고 바

이에 신동염은 “무조건 비난할 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강다솜은 “제작진 취재 결과 JMS 청년부 절반이 세뇌된 섭리 2세다. 이들은 이 안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들이 JMS를 탈퇴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잘 적응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4월 초 JMS 정명석이 6차, 7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 공판에는 외국인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신의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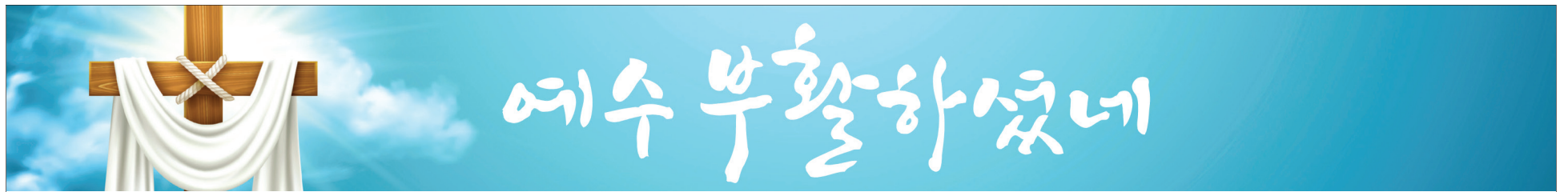
## 사람을 살리고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영어예배 오전 12:00  
 유치부,유년부, 중고등부 오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방송안내**  
 CGNTV (공중파 : KVMD 44.9)  
 본방송 : 화요일(PM10:20), 재방송 : 토요일 (PM4:30)  
 KCMUSA (인터넷 방송 : www.kcmusa.org)  
 YOUTUBE (채널명 : 기쁜우리교회/ 검색어: 기쁜우리교회 김경진 목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

담임목사 김경진

**기쁜우리교회**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Office@joyfulccc.org  
 T : 818-662-0400 Website: joyfulccc.com



**예수 부활하셨네**

# 풍성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안내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분(화~토)



**박호우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예수 부활하셨네**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 남침례교단 6대 신학교
- 740여명의 한국 학생 재학중
- F-1 학생들을 위한 I-20 발급
- 100%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 교육학 박사 (Ed.D.)
-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 목회학 박사 (D.Min.)
- 목회학 석사 (M.Div.)
- 성경상담학 석사 (MABC)
- 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
- 신학연구석사(MTS)
- 스펠전 칼리지 (신학과/글로벌비즈니스 리더십 학과)
- 워싱턴미네스트리(MTS-WM with 어노인팅, 아이자야씩스티원)
- 교회미디어 사역자 양성 과정(CMM)



**박성진 학장**

##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5001 N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 414-3754**  
Email: ks@mbts.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ks](http://www.mbts.edu/ks)

**예수 부활하셨네**

# 만남의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http://www.churchmannam.com)

**예수 부활하셨네**



# 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KOREA-AMERICA GENERAL ASSEMBLY

총회장 : 박문석 목사  
부총회장 : 진건호 목사  
총무 : 김선광 목사  
부총무 : 이현욱 목사  
서기 : 안선신 목사  
부서기 : 서사라 목사  
회록서기 : 조은혜 목사  
회록부서기 : 김영일 목사  
회계 : 안정희 목사  
부회계 : 박춘해 권사

감사: 강성수 목사, 주재임 목사, 박정희 목사  
남부노회장 : 김인철 목사  
LA노회장 : 엘리야김 목사

교단가입문의 : (213) 272-6031  
교단사무실 : 680 Wilshire Pl.#307  
Los Angeles, CA 90005



**총회장 박문석 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30
청소년예배	오전 11:30
중보기도	오전 9:30(목)
트리니티 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4442 Moulton Pkw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http://www.lagunachurch.com>

**예수 부활하셨네**

# 주향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 F. (213) 383-5085  
[info@joohyang.org](mailto:info@joohyang.org)

# 미 루이지애나 UMC 교회 탈퇴 소송, 법원서 기각

## 법원,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유로 연회 손 들어줘

미국 법원이 연합감리교(UMC) 성직자들이 탈퇴 투표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달 루이지애나 연회와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연회와 이사회는 예정된 탈퇴 절차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주 켈리 벨푸어 배턴루지 지방법원 판사는 교회와 국가의 헌법적 분리를 이유로, 루이지애나 연회와 지역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UMC 성직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성직자들은 30일 이내에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주어진다.

성직자들은 이달 초, 회원 교회들의 탈퇴

절차를 문제 삼은 루이지애나 연회와 지역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 연회 및 중남부 지역총회 감독인 들로레스 J. 윌리엄스틴 주교는 지난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사건에 분명히 적용된 수정헌법 제1조 외에도, 루이지애나 연회는 우리의 탈퇴 절차가 장정에 충실하고, 분별을 받는 모든 교회에게 공정함을 굳게 믿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조치를 법원에 제기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 (탈퇴) 절차가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계속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판결이 내려지기 3일 전, 슈리브포트 제1연합감리교회는 자신들이 탈퇴에 대한 적절한 규칙을 따랐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개입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제1연합감리교회는 부활절 다음 주일인 4월 16일 교단 탈



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 위치한 UMC 루이지애나 연회 본부. ©루이지애나 연회

퇴 투표를 실시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1연합감리교회의 교인 600명 중 427명(71.17%)이 UMC 탈퇴

를 지지했으며, 154명(25.67%) 반대, 나머지는 기권했다.

UMC는 수년간 동성결혼 축복과 공개적인 동성애자에 대한 사제 서품을 두고 논쟁했고, 이로 인해 2022년 1800개가 넘는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2019년 UMC 특별 총회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공식 장정을 통과시켰으나, 교단 내 진보 진영은 규칙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다. 이는 보수 진영 교회들의 대거 이탈로 이어졌고, 지난해 5월 출범한 보수 대안 감리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루이지애나 연회는 특별 총회를 열어 탈퇴를 결정한 58개 교회의 투표를 승인했으며, 현재 379개의 회원 교회가 남아 있다.

김유진 기자

# 칼 렌츠 목사, 힐송교회서 해고된 지 2년 만에 사역 복귀

## 오克拉호마주 털사 소재 변혁교회 전략가로

2년 전 성추문과 지도력 문제로 뉴욕 힐송교회 담임에서 해임됐던 칼 렌츠(Karl Lentz) 목사가 오克拉호마주 털사에 위치한 변혁교회(Transformation Church) 전략가로서 사역에 복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변혁교회 태미 맥쿼터스(Tammy McQuarters) 담임 목사는 최근 현지 매체에 낸 성명을 통해 “렌츠 목사가 회복됐다고 믿으며, 그가 다른 이들의 회복을 돕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맥쿼터스 목사는 “렌츠 목사는 2년 동안 자신의 발전과 치유의 과정을 거친 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지역교회에 다시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 줬다. 우리는 칼과 그의 결혼, 그의 기술, 그의 회복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칼 목사와 로라 사모와 그 가족들이



칼 렌츠 목사. ©페이스북 캡처

스스로의 회복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몸 된 다른 지체들의 회복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의 일부라고 믿는다”고 했다.

렌츠 목사의 아내 로라(Laura) 사모는 자

신의 인스타그램에 “렌츠 목사는 자신을 낮추고 사역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지난 22개월 동안 우리의 결혼 생활을 현재와 같이 회복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내가 했던 것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괜찮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가 책임을 맡은 바가 있다! 자신을 낮추고, 변명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즉 우리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감사한다!”라고 했다.

렌츠 목사는 2010년 힐송교회로 유명 인사들을 초대하며 글로벌 힐송교회를 알리는 데 일조했다.

팝스타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를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힐송교회로 끌어들이던 렌츠 목사는 2020년 11월 ‘리더십 문제’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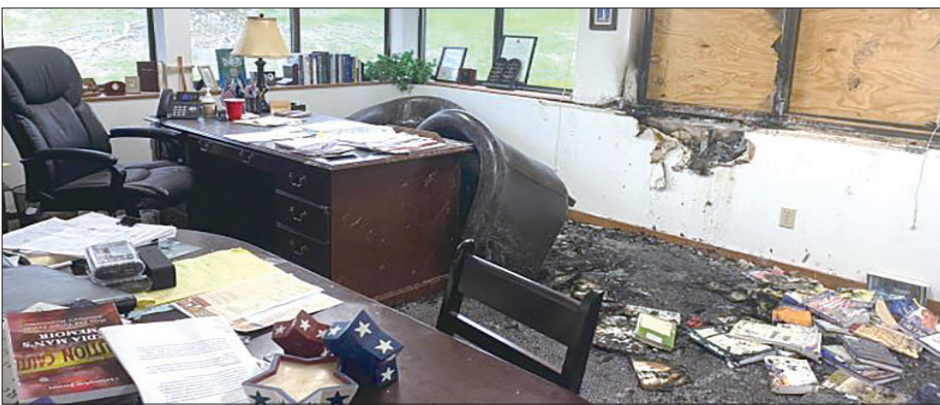
‘내내에게 성실하지 못한 문제’ 등 도덕적 실패로 힐송 뉴욕교회에서 해고를 당했다. 일부 전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은 그가 자신들을 조종해 정신질환을 앓게 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시 법률 회사인 ‘주커맨 고어 브랜데이스 & 그로스만, LLP’(Zukerman Gore Brandeis & Crossman, LLP)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렌츠 목사는 교회 지도자, 교인, 직원, 자원 봉사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들과 합의 또는 비합의로 수 차례 성적 상호 작용을 가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보고서는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계층 구조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인들을 주재해 온 ‘거짓말하는 간음자’로서 렌츠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다.

호주 의회의 앤드류 윌키(무소속) 의원이 3월 9일 처음 공개한 최근 문서에 의하면, 렌츠 목사와 다른 힐송교회 지도자들은 책 거래 및 사례금을 통해 화려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 美 위스콘신주 친생명단체 방화범, 10개월 만에 체포돼



지난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했다. 판결이 있기 전 대법원의 의견 초안이 공개되자, 친생명 단체 위스콘신가족행동 사무실이 방화 테러를 당했다. ©AlexanderShur/ Twitter

## 유죄 확정될 경우 징역 최대 20년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소재 친생명 단체 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10개월 만에, 미 법무부가 해당 공격과 관련해 체포 소식을 전했다.

위스콘신 서부지방검찰청은 3월 28일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화재 또는 폭발물로 피해를 입히려 시도한 혐의로 29세의 히든두 상카르 로이초두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국가안보국 매튜 올슨(Matthew Olsen) 차관보는 (피해를 입은) 위스콘신 가족행동(Wisconsin Family Action)을 언급하며 “로이초두리가 민간 단체를 테러하고 위협하기 위해 법적으로 금지된 소이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로이초두리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매디슨에 위치한 위스콘신가족행동 건물에 침입해 유리창과 집기들을 부수고 방화를 저질렀다.

사법 당국에 따르면, 창문으로 던져진 화염병 두 개가 건물 내 화재로 일으켰고, 시설 외부에는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었다. 낙서 중에는 “만약 낙태가 안전하지 않다면,

당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혐박성 문구도 있었다.

이는 당시 “(기준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준비가 돼 있고, 각 주의 선택에 따라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이 유출된 후,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와 교회들에 발생했던 많은 공격 중 하나였다.

로이초두리의 체포는 범의학을 바탕으로 한 장기간의 조사 후 이뤄졌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달 초 경찰이 로이초두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후, DNA 검사를 위해 그가 공공 쓰레기통에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의학 생물학자는 음식 샘플에서 발견된 DNA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DNA를 비교한 결과,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경찰은 로이초두리가 보스턴의 로건 공항에서 과테말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려던 중 그를 체포했다.

그는 28일 보스턴 지방법원에 출두했으며, 위스콘신주 연방법원에 출두할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징역 최소 5년에서 최대 20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강혜진 기자

# 메인주 교회, 미션 스쿨에 ‘친동성애’ 요구한 주정부 고소

## ‘성경적 성가치관’ 이유로 주 장학금 혜택 수년간 차단돼

미국 메인 주의 한 교회가 동성애자(LGBT) 차별 금지 정책을 따르는 조건 하에 종교 사립학교에 장학금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주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뱅고어 크리스천스쿨(Bangor Christian School, BCS)을 운영하는 크로스포인트교회(Crosspoint Church)가 이번 주 메인주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메인 주법은 주립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교육 기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정책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교회 측은 이 법이 “성경적 입장을 고수하는 BCS에 독약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BCS는 결혼을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며,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기독교적 성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

고소장은 메인 주 법에 의해 “BCS는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을 잃었으며, 격격한 가족들이 더 이상 BCS에서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며 “따라서 종교적 배제는 국가가 승인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경우에만 종교 학교가 장학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BCS)에게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혜택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헌법상 보호되는 종교적 행사를 포기시키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종교

적 행사에 불이익과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크로스포인트교회의 법무 대리를 맡은 ‘퍼스트리버티인스티튜트’(FLI)의 리 패터슨 변호사는 28일 성명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카슨 대 마킨’(Carson v. Makin) 판결을 인용했다.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은 메인주 교육부에 장학금 프로그램에서 종교학교를 제외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며 6대 3으로 판결했다.

패터슨은 “메인 주는 작년 대법원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차별이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주의 새 법은 종교 학교가 학교 선택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종교 학교에 특별한 부담을 부과한다.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실천한다는 이유로 종교 학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며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카슨 판결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애런 프레이 메인주 법무장관은 BCS에 대해 “LGBT 문제에 대한 종교적 견해로 인해 여전히 장학금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발표한 성명에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제공하는 교육은 공교육에 해롭다. 그들은 다른 모든 종교를 배제하도록 단일 종교를 장려하고, 게이 및 트랜스젠더 아동의 입학에 거부하며, 교사와 교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 공개적으로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을 해결하고 공격 자금이 차별, 불관용 및 편견을 조장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밀스 주지사의 행정부 및 입법부 의원들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유진 기자



# 예수 부활하셨네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30  
 3부 예배 오전 11:30

YDC한어대학청년부  
 4부예배 (청년대학부) 주일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구봉주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521-0991 Fax: 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주소 및 전화**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Email: admin@thanksgivingchurch.com  
 T. (714)521-0991 Fax: 714-521-4636  
 http://thanksgivingchurch.com/



**감사한인교회**  
 THANKSGIVINGCHURCH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LA시티교회

"성도들을 일터선교사로 세우는 교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씨니김 담임목사**

플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나는 일터선교사입니다" 저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실천신학 교수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1시  
 새벽기도회: 화~금 6:00  
 성경정독: 매일 아침 6:45  
 치유상담: 매주 월요일  
 마음을 만지는 사진 테라피  
 성경푸드아트 테라피  
 일터사역학교 (온오프라인)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 밸리연합감리교회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안정섭 목사**

**주일에배 1부 오전 7:30  
 주일에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10408 Balboa Blvd, Granda Hills, CA 91344  
**T. (818)366-0089 / www.vkumc.com**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제사대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오전 6시  
3부예배(제사대예배) 오전 11:30 (토-일) -현장성경예배  
대학원부/EM 오후 2:00 수요일(보)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이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교차)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예배 오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 1부 전례예배 오전 7:3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2부 전례예배 오전 9:00 아름나눔(ANNA) 주일 오후 2:30  
주일 3부 월간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전 9: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영,유아부,유치부,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한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 새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org

**우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보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수요일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예배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교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방송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안)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안)기도회(마침)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일(안)기도회(마침)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김지성**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w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 고등 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wkum.com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보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 미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탈퇴 앞둔 UMC 교회 '폐쇄 조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에 위치한 5번가 연합감리교회.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연합감리교(UMC)에서 탈퇴 절차 앞둔 노스캐롤라이나의 유서 깊은 교회가 지역 연회에 의해 전격적으로 폐쇄 조치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약 170년 동안 존재해 온 윌밍턴의 5번가 연합감리교회(Fifth Avenue United Methodist Church)를 출석률 감소로 인해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지역 감리사와 코니 미첼 셸턴 노스캐롤라이나 감독이 지난 26일 주일 저녁 교회를 방문해 교인들에게 직접 통보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인들은 교단 탈퇴에 관한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월, 교회 지도부는 240명 이상의 교인의 동의를 받아 UMC 탈퇴 절차를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5번가 교회의 교인인 저스틴 윌리엄스 포프는 CP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공식적인 탈퇴 절차의 일환으로 교구 감독이 주일 저녁 설명회를 계획했다고 믿었다"면서 "대신 교인들은 지역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로써 5번가의 탈퇴 기회는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폐쇄를 요청하거나, 동의하거나, 원한 적이 없으며, 교인들에게 교회 폐쇄 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충격을 받고 있다. 잘못된 결정을 재고하고, 교회를 교인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5번가 교회가 교단 탈퇴 절차를 위해 고용한 짐 세이 변호사는 "교회는 여전히 모든 대안을 모색 중이다. 지역 교회에 있는 우리와 더 큰 교회의 감독 사이에 이러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반면, 윌밍턴 지구가 포함된 하버 지구 교육감인 타라 레인 주교는 교회를 폐쇄한 이유가 "출석률 감소"임을 강조했다.

레인 주교는 CP에 보낸 성명에서 "최근 5번가의 교인 수와 선교 활동이 급감했으며, 교회는 현재 교인 수 205명에 매주 약 20여 명이 출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우리의 모든 교회가 번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폐쇄가 다시 부활로 이어질 것을 믿으며, 이 공간을 사용해 지역 사회의 명확하고, 현재적이며, 시급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 그는 "노인과 장애인에 위한 모임 공간", "주요 폭풍 후 대피소와 지원 제공 장소", "하나 이상의 새로운 연합감리교 신앙 공동체를 위한 예배와 공부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5번가의 모든 교인들은 지역 UMC 교회로 옮겨진다. 교인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교회로 갈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서 "성직자들은 NC(노스캐롤라이나) 연회 감독과 위원회가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 성경 애니메이션 '다윗', 클라우드 펀딩 역대 '1위'



성경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David)이 최근 클라우드펀딩에서 역대 1위 모금액을 달성했다. ©다윗 공식 홈페이지

성경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David)이 유명 기독교 TV 시리즈 '선택받은 자'(The Chosen)를 제치고 세계 1위 클라우드펀딩 기록을 달성했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다윗'의 감독인 필 커닝햄은 지난주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3월 31일까지 펀딩 목표액인 6천만 불 중 4천9백만 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선택받은 자'가 세운 역대 최고 후원액인 4천만 불을 넘어선 것이다.

클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선활동, 상품 개발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후원이나 투자를 받는 것을 말한다.

커닝햄 감독은 이 대체외의 인터뷰에서 '다윗'이 "드림웍스의 흥행작 '이집트 왕자'(The Prince of Egypt, 1998) 이후 가장 중요한 성경 애니메이션 영화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영화가 많은 관객들에게 넘어설 만한, 몇 안 되는 성경 이야기 중 하나임을 반드시 믿는다"며 "우리는 기독교 관객들이 틀림없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싶고, 그들

이 사랑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방식대로 전달돼 매우 기쁘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또 쉬운 접근 방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성경에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초대해 도전과 영감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다윗은 정말 많은 음악을 지었다. 그는 예술가이자 음악가다. 이야기에 음악을 접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며 자연스럽다.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과 같다"고 했다.

배급사인 엔진스튜디오스(Angel Studios)의 CEO인 닐 하몬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의 클라우드 펀딩을 받은 전례"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나 흥분된다"고 밝혔다.

'다윗'의 공식 웹사이트는 "디즈니 또는 픽사 프덕션과 동등한 수준으로 전달되는 성경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다윗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제작자들은 '이집트 왕자'의 감동적인 진정성과 '모아나'(Moana) 또는 '라퐁젤'(Tangled)의 현대 애니메이션과 음악적 재미가 결합된 이야기를 스크린에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윗'은 가족 친화적인 영화로 제작되며, 개봉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유진 기자



## 나이지리아 극단 무슬림들, 카두나주서 기독교인 27명 살해

해당 지역 출신 디아스포라 “정부, 생명 안전 심각히 여겨야”



나이지리아 남부 카두나주. ©위키피디아

나이지리아의 ‘폴라니 목자들’과 테러리스트 등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3월 한 달 동안 카두나주에서 기독교인 27명을 살해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현지 주민들은 모닝스타뉴스와 인터뷰에서 “장은 카타프 카운티(Zangon Kataf County)에서 두 번의 공격이 발생했다. 3월 14일 랭슨(Langson) 마을에서 10명이 살해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월 10일 웅완 와킬리(Ungwan Wakili) 마을에서 17명이 살해됐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개발협회 샘 아치(Sam Achie) 회장은 “용의자와 그의 위치를 알고 있는 정부는 속히 그를 체포해 언행 일치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 없이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무고한 기독교인을 반복적으로 공격해 온 용의자의 체포를 위해, 정부가 장은 카타프 카운티에 더 많은 보안 요원을 긴급히 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웅완 와킬리 주민들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오후 9시경 마을과 인근 기독교 공동체를 약 40분 동안 공격한 뒤 사라졌다”고 전했다.

현지 주민인 조슈아 솔로몬(Joshua Solomon)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마을에 있는 우리 집이 테러리스트와 무장한 목자들의 공격을 받았다”면서 “집은 불타버렸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을 모두 죽였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인 바나바 토낙(Barnabas Tonak)은 모닝스타뉴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어머니와 장모 역시 공격의 희생자”라며 “공격자들은 기독교 지역사회를 침략하기 위해 테러리스트들을 대동해 온 무슬림 폴라니 목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격으로 총 17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했다. 우리 가족 5명이 사망했고 다른 가족들은 부상을 입었다. 과거 이 목자들은 우리 백성을 살해한 것 외에도 우리 농장과 농작물을 의도적으로 파괴했

다”고 했다.

유럽으로 피신한 카두나의 기독교인들도 이번 공격을 비판했다.

카두나주의 디아스포라인 카시미르 비리요크(Casimir Biriyok)와 재닛 네일(Janet Nale)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최근 웅완 와킬리와 다른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17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공격은 지난해 12월 18일 카두나 남부의 말라곡, 카무루-이쿨루, 아분(브로니 프로노) 공동체에서 무고한 기독교인 주민 38명이 살해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격에 관해 당국으로부터 어떤 설명은 듣지 못했으며, 관리들이 생존자들을 방문하는 일도 드물었다”며 “나이지리아 정부와 카두나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살인에 대한 단순한 규탄 성명만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이지리아와 카두나주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너무 적다”며 “우리가 한때 알고 있던 평화로운 카두나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주가 킬링필드가 된 것은 정말 너무 비극적인 일이다. 정치계의 누군가는 생명의 안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카두나주 경찰 사령부의 무함마드 잘리제(Muhammad Jalije)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격이 있었고, 사람들이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 오전 9:00 EM예배 (2부) 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발리제물 OC제물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경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193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1, (818) 363-8887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주일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콜라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 사우스베이, 오렌지카운티 지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정부 오전 11:00 유정부 오후 8:00 유정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 217-9191 www.gpiclove.com

신태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V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주일학교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홍장로교회**  
파송기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서보천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민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이중용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KM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30 GRC(EM)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토요일) 오전 9:0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매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 402-2919 www.cmchome.org

방상용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기든구국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 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이우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N)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안창훈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다우니제일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서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림학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생일 성가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별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김한요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청년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등한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관은교회 세계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한기홍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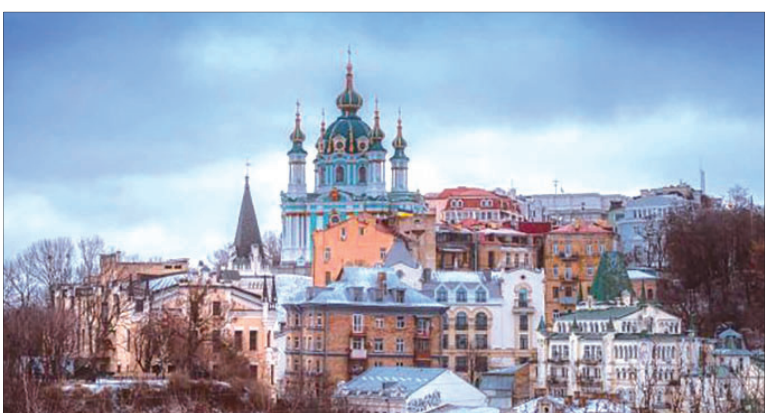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otmail.net

박훈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 우크라이나 정교회 성직자들, 키예프 수도원 퇴거 명령 거부



우크라이나 키예프 정교회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com

우크라이나 정교회(UOC) 성직자들이 키예프의 역사적인 수도원을 떠나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령에 저항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CT)가 보도했다.

키예프 페체르스크 수도원(Pechersk Lavra)은 UOC가 점유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UOC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교회에서 분리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일부 성직자들이 모스크바와 협력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CT는 전했다.

성직자들은 지난 29일 수도원을 떠나야 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퇴거 마감일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사자들에게 “종교적 장소를 존중해달

라”고 촉구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해 온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 키릴 총대주교는 국제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백만명의 우크라이나 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도원 강제 폐쇄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UOC 공보실장인 메트로폴리탄 클레멘트(Metropolitan Clement)는 BBC에 “수도원 퇴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요한다면 그것은 전체주의라고 불리운다”라며 “우리는 그런 국가나 정부가 필요하지 않다. 우리에게는 헌법과 법률이 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296

## “튀르키예(터키)에 부는 교회개척(CP)을 바라보면서”

튀르키예 안에는 아랍권의 모든 민족, 아프리카의 민족들, 유럽의 각 민족이 분포되어 살고 있다. 그들 중에는 자기 나라의 재난이나 분쟁 등으로 난민이 되어 온 사람들이 5백만 명 이상이다. 도시 곳곳마다 넘쳐나는 각국의 난민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미주와 한국의 중보 기도자들의 “연합중보 기도회”는 터키와 이슬람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당시에도 500여 명이 넘는 세계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의 영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복음 증거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많은 선교사는 두려움 가운데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때에 후방에서 날아온 중보 기도자들의 연합 기도는 현지 선교사들에게 힘을 주었고, 다시 한번 이슬람의 견고한 진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영적 의지를 갖게 했다. 그리고 그 해에 말라티아 도시에서 독일 선교사 팀만과 터키 현지인 목사 네자티와 우르 형제가 그들의 사역처에서 우익 이슬람 과한들에게 칼로 수십 번씩 찔리고 고문을 당하여 잔혹하게 살해당한 순교 사건이 터졌다. 그들의 희생을 시작으로 터키 안에 잠자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스탄불 광장에 모여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는 글을 현수막에 써서 들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놀려 있었던 담대함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다. 필자는 터키 현지 교회들을 그때부터 보았고,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과 교제하며 연합으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다.

터키는 81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몇 개 주에만 현지인 교회가 가정교회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교회가 없는 주에선 교회 개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매년 수백 명씩 모여 터키의 도시들을 돌면서 가졌던 “연합중보 기도회”는 2010년이 되어서 이즈밀(에베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에베소 한복판 광장에서 2,000여 명의 기도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하였다. 터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당국에 에베소 광장 사용 허가를 받고, 관광객들이 매일 수천 명씩 몰려드는 그 역사적 현장에서 관광 시간이 다 지난 저녁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수천의 기도자들이 이 땅의 복음화, 곧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부터 터키 현지 교회들도 연합 기도회에 일부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응답하시기 시작했다.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바로 2011년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이 점점 아랍권 나라들에 영향을 끼치고 시리아까지 반정부 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내전이 발생하였다.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였다. 4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의 대부분이 국경을 넘어 터키로 대거 몰려들었다. 그때부터 필자의 선교단체를 비롯한 현지 선교사들은 난민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난민을 대상으로 복음증거를 하였다.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속에는 그 나라에서 전도사역을 하던 수많은 한인 선교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터키 안으로 들어오면서 난민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난민 가정들 중심으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다. 13년이 지난 지금 터키도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라고 국가의 호칭을 바뀌었고, 터키의 81개 주 전역으로 퍼진 난민들의 교회 개척 운동이 부흥기를 맞고 있다. 이 변화의 현장에서 필자는 분명하게 보았다. 하나님이 이 튀르키예를 들어 이슬람권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고골의 “외투”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아카키 아카키에비치는 말단 공무원입니다. 그는 관청의 문서를 정서하는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그는 즐거울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노동자입니다. 그는 비록 정서관(正書官)이었지만 언제나 즐거운 표정을 짓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글자 가운데 몇몇 글자를 특히 좋아해 정서하는 서류에서 그 글자들을 발견하면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만약 관청이 그의 열성에 맞추어서 포상과 진급의 기회를 부여했다면, 그는 상당한 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성실과 열정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소 무능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간부급 공무원들이 그를 진급에 좋은 자리에 옮겨 주어도 그는 적응하지 못합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선호할 만한 직책을 맡겨도 그 새로운 직책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는 부적응의 부담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 업무인 정서(正書)직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무능하지만 착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카키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를 무시합니다. 그가 일하는 관청에서도 그를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위들조차도 그를 무시해서 그가 정문을 통과해 지나갈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 상관들이나 동료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 놓고 무시하고 그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젊은 후배 관리들은 아카키를 풍자하고 골려 먹기에 바빴습니다. 아카키는 그야말로 동네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카키는 착실하기 그지 없는 공무원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아무도 괴롭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카키가 이런 취급을 일상적으로 받고 사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카키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난과 조롱 혹은 무시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지장이 있지 않은 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뎠던 아카키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러시아의 강추위입니다. 언제

험상곶은 사내들은 아카키의 외투를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아카키는 너무 분했습니다.

아카키는 친구의 조언대로 장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아카키에게 겁을 주며 위협했습니다. 아카키는 분노와 절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외투를 빼앗긴 억울함과 분노로 그가 죽은 것입니다.

아카키는 원한이 너무 커서 유령이 되었습니다. 아카키는 유령으로 돌아와 사람들의 외투를 빼앗습니다. 외투를 빼앗긴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잡으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아카키에게 호통 쳤던 그 장관의 외투를 아카키 유령이 빼앗고 난 후에야 아카키 유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은 러시아 천재작가 고골의 “외투”의 줄거리입니다.

고골은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고골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로 러시아 국민 작가입니다. 고골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고골은 알렉산드르 푸시킨, 미하일 레르몬토프와 함께 러시아 근대문학의 시작을 알린 문호이자 사실주의 문학의 선구자입니다. 많은 후배가 고골을 인정했습니다. 고골의 후배 도스토옙스키는 고골의 작품인 ‘외투’에 빗대어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라며 고골의 영향력을 칭송하였습니다.

고골은 외투를 소망하고 외투를 빼앗긴 아카키의 삶을 통하여 인간들의 희망사항 ‘외투’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외투’가 있습니다. 소중한 꿈이요 자산입니다. 외투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필요하고, 그 외투가 긴요하긴 하지만 그 외투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고골처럼 파멸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외투에 대한 집착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외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카키가 경찰에게, 장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아카키를 무시한 것은 큰 패착입니다. 그 원한으로 아카키가 유령이 되어 복수합니다. 물론 유령이 된다는 것과 복수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고골의 마음을 몰라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 얼바인온누리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주소 및 전화**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박신웅 담임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렬 담임목사**

Dallas Baptist University  
Talbot Seminary  
Azusa Pacific University  
BA, MA, MDiv,  
DMin(candidate)

**주소 및 전화**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kyung.kim@biola.edu  
www.smkc.us



### LA 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온라인 수요저녁예배 (수) 오후 8시  
새벽예배 월 - 온라인 Only  
화 ~ 토 - 현장 영상예배 (오전 6시 20분)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 CMF 선교원

결혼교실, 결혼준비교실, 아내교실,  
사모교실, 선교사부부축제  
MK Celebration, L 사랑의 찬양제  
CMFN  
www.GodFamily.com



13459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714)493-0191

김철민 장로

### 은혜로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김경환 담임목사

### 토렌스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영어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2531 West 237th Street, Torrance, CA 90505  
T.(310)326-2001/310-748-6878

이승혁 담임목사

### LA 기쁨의 교회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EM예배 오전9:00  
금요예배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thejoylife.org  
3938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351-9975 (Fax겸용) e-mail: cometojx@gmail.com

이희문 담임목사

### 남가주기쁨의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유치부주일예배 오전 11:00  
대학청년부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45, 토 오전 6:20



25500 S. Vermont Ave, Harvor City.,CA90710  
T:(310)326-0300

이황명 담임목사

### 가나교회

주일예배 오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5시:30



1201 W. 255st St, Harbor City, CA 90710  
310-986-9797 ganachurch@hotmail.com

안병권 담임목사

###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테(매주 토) 오전10:00~11:00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이춘준 담임목사

### 갈보리선교교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0:3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8700 Staton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722-4805

심상은 담임목사

### 다우니제일교회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화~토)  
주일학교 주일오전 11시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지영환 담임목사

### 오레곤벤엘장로교회

1부 한국어예배 오전 8:15  
2부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한국어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18391 SW Blanton St, Beaverton, OR 97078  
T.(503)848-7081

이동하 담임목사

### 구세군나성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6:00  
금요치유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90006  
T. (213)480-0714

김필수 사관

### LA 백송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금)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245-6616

김성식 담임목사

### 갈릴리 선교교회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3721 Marmion Way LA CA 90065  
T.(323)735-6412 / gmcchurch.com

한천영 담임목사

###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00  
3부 예배 오전 11:45  
4부 예배 오후 1:30  
금요 예배 오후 8:00  
새벽 예배(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 토렌스제일장로교회

예수 부활하셨네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  
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코창현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 동부사랑의교회

예수 부활하셨네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4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EM(Holy Wave) 오전 10:00  
한어대학청년부(드림청년부) 오후 2:00  
금요영성집회 금 저녁 7: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20



우영화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ESCC), eastsarangweb@gmail.com  
www.eastsarang.org

강준민 칼럼

#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깨달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우리는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하

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입니다. 받고 주는 사랑입니다. 준만큼 받지 못하면 섭섭해 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속으로 분노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받으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 때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원이 유한하고, 공급이 유한하기 때문에 계속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인간의 사랑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의 반응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풍성합니다. 주고 또 주어도 차고 넘치는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수명이 짧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뜨겁다가 식어버리고, 열정적인 것 같지만 권태를 느낍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함부로 대하고, 심지어는 경멸하기 까지 합니다. 그래

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차별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자기편을 사랑합니다. 자기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무분별합니다. 때로는 까닭 없이 미워합니다. 까닭 없이 싫어합니다. 까닭 없이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때로는 폭력적입니다. 무례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폭력을 행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신비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때를, 우리가 연약할 때(롬 5:6), 죄인 되었을 때(롬 5:8),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롬 5:19)라고 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창기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기 된 우리와 결혼해서 신랑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면 한 몸이 되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동일하게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가 소유한 모든 나쁜 것을 다 가져가시고, 신랑 되신 예

수님은 신부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유하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는 이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시고(비유적으로) 그 여자를 모든 악에서 사해 주시며 또한 그 여자를 자기의 모든 선한 것으로 치장해 주신다. 죄는 이제 그 여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리스도에게 지워지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삼키운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진다.”(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3대 논문』, 컨콜디아사, 308쪽).

십자가의 사랑은 안식을 제공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서운 복수심을 품고 복수에 대한 집념으로 살아갑니다.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살면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십자가뿐입니다. 존 번연은 《천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의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 구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며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송재호 칼럼

#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 여섯 번째 주일이며, 부활주일을 한주 앞둔 종로 주일(Palm Sunday)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 주일까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만 왕의 왕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날 성경을 보면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면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려 주일(Palm Sunday)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당시 메시아로 개신하는 왕처럼 오시는 예수를 환영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래되는데 혹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이름하여 호산나 주일(Domonica Hosanna)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종려 주일에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나귀새끼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탔던 말과 비교해 볼 때 지극히 불품이 없어 보이는 짐승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탄 사람은 능률해 보일 수 있지만 나귀를 탄 사람은 능률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대에 나귀는 그저 가난한 촌에서 물건을 대신 지워서 나르는 짐승이었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 아니

었다고 합니다. 당시 나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집을 실어 나르거나, 이동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짐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위엄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을 타곤 했지 나귀를 타는 경우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에게 키도 크고 화려하고 능률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귀새끼를 택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무엇보다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기록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짊어지시

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의 고난이 무려 25장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한주간 당하신 고난에 관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자청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을 향해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때문에 크나 큰 고통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번민”과 “감당키 힘든 고문”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악과 실수를 친히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셨습니다. “그가 짊어진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이사야 53:4-5)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묵상하며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 담임목사 청빙 공고

공고일: 2023년 3월 6일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소속으로 지난 50년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 온 교회로서, 400여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며, 신앙공동체를 이끌어 갈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세인트루이스 한인장로교회 청빙위원회  
11032 Manchester Rd., St. Louis, MO 63122  
http://www.kpcstl.org

### 자격요건 | Qualifications

-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M. Div.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
- 목회 경력(Full Time)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
- 한국어 설교와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분
-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의 거주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제출서류 | Requirements

- 이력서, 학력 증명서, 목사 안수 증명서
-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 추천서 2장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Website link도 가능))

### 일반사항 | General

- 모든 서류를 한 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되면 공고를 즉시 마감합니다.
-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보내실 곳 : [apply.kpcstl@gmail.com](mailto:apply.kpcstl@gmail.com))

진유철 칼럼

### 현장에서 해보아야 합니다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사람을 이론가와 행동가로 나눈다고 하면, 행동하지 않는 이론가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냉정하고 극단적이고 잔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투쟁'이란 히틀러의 자서전적인 책에서 보여주듯이 종족우월주의라는 이론에 깊이 빠진 그는 열등한 종족은 없어야 한다는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과격한 현상을 보이는 경향도 아직 현실 감각 보다는 이론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현장에서 일

하며 살기 이전까지는 현실초월적인 이론에 빠져 젊음을 데모와 투쟁에 바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이론만 배울 때는 반대자들을 "다 죽여 버릴까요?" 하며 과격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은 요한도 현장에서 실제로 전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점점 온유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제일 상담을 격하게(?) 하는 분들이 과송된 지 3년 미만 된 분들입니다. 특히 몇 개월 안 된 분들은 '속았다. 잘못 왔다. 돌아가겠다. 선임이 틀렸다. 후원이 잘못 온다.....' 이론만으로 선교를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오래 동안 현장에서 살면서 선교하신 분들은 대부분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판단과 정죄에 빠르고 냉정하고 과격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공부 몇 가지를 하거나 특별한 제자 훈련을 했다는 사람들이 현장이 없을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딱딱해지고 남을 정죄 심판하는 자세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책만 읽고 이론으로만 살지 말고 실제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현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해 이론으로 아는 척하지 말고 실제로 현장을 통해 선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론만 주위 듣고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서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들을 계속 행함이 있는 현장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어제는 부활절을 준비하며 봄맞이 교회 대청소로 모두가 열심히 땀 흘리게 했습니다. 주일이면 각 교구와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로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같

은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실제의 현장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행함이 있을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이 땅과 하늘에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주일 3부예배가 끝나면 바로 독일로 날아가서 월요일 오후에 '계제케'라는 곳 한적한 수양관에 도착하고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그곳에서 제 아내와 9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 일찍 수양관을 출발하여 자동차로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달려가 비행기를 타면 L.A.에 목요일 저녁에 도착하여 금요일 새벽부터 온 성도들과 함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갖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조언하기를, '할 수 있을 때 'No'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기회는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현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준수 칼럼

### 고난의 길 (Via Dolorosa)



이 준 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영성문화사역팀장

나이가 들수록 뇌성마비 장애로 인한 근육통증과 신경통이 점점 심해져 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 요즘 자주 한의원에 다니며 치료받고 있다. 한의원 원장님이 중국 북경대에서 공부하신 젊은 분으로 실력도 뛰어나고 신앙도 독실하며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매주 한 번씩 방문하여 침을 맞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치료받고 있는데 어깨통증도 많이 가라앉고 몸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지는 등 효과가 매우 크다. 늘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치료해주시는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런데 한의원까지 가는 길이 좀 멀다. 집에서 2.3마일 거리인 Anaheim 지역의 Brookhurst & Crescent에 위치해 있어 전동휠체어로 40분 정도 걸린다. 버스를 타도 되는데 기다리고 갈아타는 시간을 합하면 40분이 더 걸려 그냥 휠체어로 이동하고 있다. 다소 먼 거리라 운전하기 좀 힘들고, 특

히 여름철엔 강렬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으로 온몸에 땀을 뻘뻘 흘리긴 하지만 가는 동안 여러 다양한 거리 풍경을 경험할 수 있어 참 재밌는 것 같다.

한의원까지 가려면 대략 3개의 큰 길을 지나야 하는데, 첫 구간인 La Palma에서 Crescent까지는 길도 넓고 나무가 우거져 있어 별로 힘들이지 않고 쾌적하게 갈 수 있다. 두 번째 구간인 Magnolia에서 Gilbert 까진 길은 평평한데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아 뜨거운 햇빛을 온몸으로 맞고 가야하며, 마지막 구간인 Gilbert에서 Brookhurst까진 가장 힘든 코스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뿐 아니라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길의 폭도 좁아 휠체어를 운전해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휠체어 바퀴가 약간만 어긋나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길만 무사히 통과하면 한의원에 도착해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훌륭한 치료를 받고 내 몸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비록 가는 길이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해도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가 인생의 거리를 걷다 보면 평평한 길을 가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을 지날 때도 있지만, 때론 높은 언덕을 오르고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험난하고 어두운 지역을 지날 때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이탈하지 않고 똑

바로 따라 간다면 원래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는 인내와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금요일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실 때도 이런 마음이셨으리라. 무거운 십자가가 온몸을 짓누르지만, 뜨거운 태양에 땀이 철철 흐르지만, 채찍으로 얻어맞은 상처가 육신육신 수시지만, 무엇보다도 3년 동안이나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 자신에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모두 떠났다는 사실에 외로움이 가슴 깊이 사무쳤겠지만 예수님은 용서와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고난의 길(Via Dolorosa)'을 묵묵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셨다. 그리고 그 소중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이다. 결국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것이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열심히 따르며 이 고난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길 기도드린다.

주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험난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험한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발판으로 만들어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가 가는 길에서 넓고 편편한 길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좁디좁은 험한 길을 가더라도 언제나 당신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 세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가야할 이 머나 먼 길을 언제나 즐겁게 찬송을 부르며 갈 수 있겠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하셨네

## 할렐루야한인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 : 오전 8시  
 주일 2부 : 오전 11시  
 수요일예배 : 오후 7시 30분  
 새벽예배 : 오전 5시 20분(화~금)  
 금요일예배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8시 30분  
 토요일예배 : 오전 6시



송재호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595-3110  
 www.hkchurchla.org

예수 부활하셨네

## 웨스트힐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주일~금)  
 오전 6:00(토)  
 EM예배(1부) 오전 9:00  
 EM예배(2부) 오전 11:00  
 한어청년부 주일 오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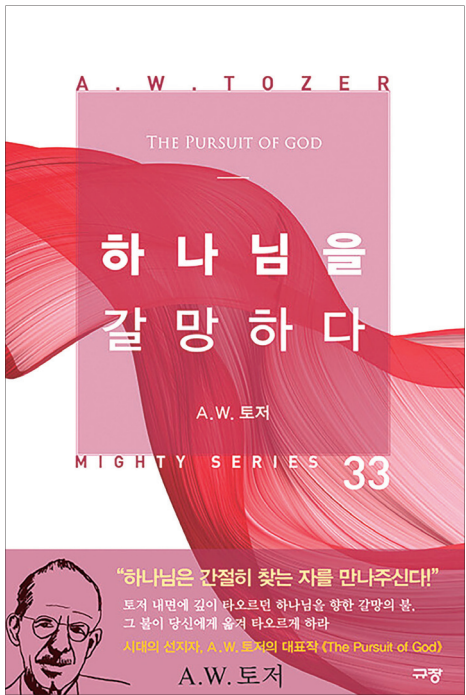
오명찬 담임목사

**주소 및 전화**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크리스찬북뉴스서평] 영혼을 깨우는 선지자적 외침

#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다**  
 A. W. 토저 | 이용복 역  
 규장 | 192쪽

**진짜 부흥은  
 거룩한 갈망에서  
 시작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  
 하나님을 갈망하라!**

토저 내면에 깊이 타오르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  
 그 불이 당신에게  
 옮겨 타오르게 하라

기 것으로 녹여 선지자처럼 강력하게 호소하고 촉구하는 일에 힘쓰기 때문이다. 담고 있는 메시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독자(혹은 청자)를 설득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저자이다. 토저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한다.

“그런데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의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교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만성적 불신앙 때문이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믿음을 통해 작동하게 되지만,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영적인 일에 둔해진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83쪽).”

그리고 토저의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엄청난 몸부림쳤지만 거듭 실패만 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은 자기의 영혼을 뜯어고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완전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139쪽).”

〈하나님을 갈망하다〉는 토저의 다른 책들처럼 체계적 구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1부 ‘영적 갈망을 회복하라’, 2부 ‘생동하는 믿음을 회복하라’이지만, 토저는 총 10장으로 구성된 책의 각 장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불신앙의 죄인지 깨우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라고 권면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고, 영적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고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토저의 가르침은 강의실에서 조직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배우는 방식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반복적인 호소에 가깝다. 이 독특하고 열정적이고 강력한 방식이 토저를 이 시대 꼭 들어야 할 목소리가 되게 하는 것 같다.

오늘날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자신을 갈망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만 높임받기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 자신을 바치기 원한다는 내용의 찬양도 그 찬양의 멜로디와 분위기에 심취한 사람들의 자기만족 표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기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예배 형식과 프로그램, 도구와 장치로 만들어낸 영성은 오래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는가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서재 바닥에



©픽사베이

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토저는 이 책을 통해 계속 독자에게 묻고 있다.

토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의 많은 부분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쪽으로 끌어당겨 우리의 기준에 그분을 맞추겠다고 고집부린다(153쪽).”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 자들이다. 그분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분 그대로 바라

보기 원하는 자들이다. 주도권 싸움이 계속되는 그리스도인의 내면 전쟁이 더욱 치열한 이유는 이 세상이 온통 우리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들 속에서 토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갈망하라는 토저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독자가 이 책을 통해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온유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그는 실로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곤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이사야 53 : 4

Surely he took up our pain and bore our suffering, yet we considered him punished by God, stricken by him, and afflicted.

ISAIAH 53:4

www.ChurchEveryday.org

**예수 부활하셨네!**

**에브리데이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Office: 818-832-6628  
 Fax: 818-368-0089  
 info@ChurchEveryday.org

**Worship Hours**

**Sunday 주일예배**  
 1부 - 8:00AM (성인)  
 2부 - 9:30AM (성인/교육부)  
 3부 - 11:15AM (성인/교육부/항기마을)  
 한어청년부 - 1:00PM

**주일영예배**  
 EM 성인 - 9:30AM  
 영어청년부 - 11:15AM

ANC 온누리교회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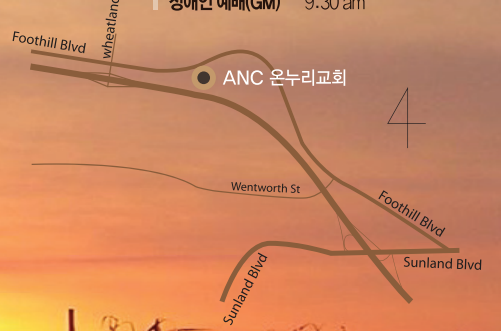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한 ANC 온누리교회가 이제 27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형상 회복을 위하여 힘쓴 흔적들이 열매로 맺혀있고,  
아름답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7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선린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예배	1부	7:30 am
	2부	9:30 am
	3부	11:30 am
	(Passion Worship)	
금요워십		7:45 pm (금)
새벽기도회		5:30 am (월-금)/6am (토)
주일학교/중고등부	1부	9:30 am
	2부	11:30 am
영어회중(ANCC)	1부	9:30 am
	2부	11:30 am
장애인 예배(GM)		9:30 am



# CELEBRATE EASTER

His STORY does not end here



10000 FOOTHILL BLVD., LAKEVIEW TERRACE, CA 91342 / 818-834-7000 (담임목사\_ 김태형)

WWW.ANCONNURI.COM

##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 하셨습니다!”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BGC 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헵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본당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밸리채플

OC채플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1:00  
주일 3부 오후 1:30 (영어예배)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대한 예수교 장로회 미주 합동 총회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www.icccla.org

오후 7:30 수요영성집회

오전 5:30 (월-금) 새벽예배  
오전 6:00 (토)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OC채플: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 나성영락교회

하나님의 사람 | 하나님의 나라

나성영락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욱 새롭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3가지의 목표, 하나님을 섬기며(섬김), 이웃과 나누고(나눔),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전함) 한인교회로, 지역공동체와 한인사회, 미주와 세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더욱 힘을 내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박은성  
Rev. Dr. Eunsung Park

**예배안내**

- 주일예배 1부 7:30 AM
- 주일예배 2부 9:00 AM
- 주일예배 3부 11:00 AM
- 교육부예배 11:00 AM
- EM예배 11:00 AM
- 청년부예배 1:30 PM

**YNC 나성영락교회**  
YOUNG NAK CHURCH OF L.A.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https://youngnak.com/>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진유철 담임목사  
Senior Pastor Rev. Yu Chul Chin



[www.lafgc.com](http://www.lafgc.com)

**예배안내**

- 1부 오전 7:30 본당
- 2부 오전 9:30 본당
- (열린예배) 3부 오전 11:45 본당
- (조용기록사 영상예배) 4부 오후 1:30 권사회실
- 새벽예배 월 - 토 오전 5:30 / 본당
-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 본당
- 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7:30 / 본당
- 영아부 예배(0-2세) 주일 오전 9:30, 11:45 / 본당 영아부실
- 유치부 예배(3-5세) 수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2층 유치부실
- 유년부 예배 주일 오전 9:30(영어), 11:30(한국어) / 구 교육관
- 금요일 오후 7:30 (AWANA) / 구 교육관
- WG 영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영어중고등부실
- JVT 한어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1:30, 금요일 오후 7:30 / 신 교육관 한어중고등부실
- 청년 예배 주일 오전 11:45 / 본당
- EM 예배 목요일 오전 9:30 / 구,신 교영육관
- 실버드림대학 토요일 오전 9:00 / 구,신 교영육관
- 토요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30 / 구,신 교영육관

순복음의 새 역사를 만드는  
**나성순복음교회**  
LA FULL GOSPEL CHURCH

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4102 / Tel. 323-913-4499  
lafgcusa@yahoo.co YouTube 유튜브 채널 - '나성순복음교회' @LAFGCTV

#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JESUS IS THE ANSWER



신승훈 담임목사

**예배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0:30
- 3부예배 오후 1:00
- 라티노(스페인어) 주일 오후 5:00
- GCEM 오후 1:00
-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 Grace and Glory of God 러시아 교회 토요일 오후 2:0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예수 부활하셨네!



**주님의 영광교회**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2023년으로 창립 24주년을 맞게된 주님의 영광교회는 LA다운타운, 그랜드와 워싱턴이 만나는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모든 구원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충만하여 제자되기를 힘쓰며, 2세가 잘되도록, 또한 선교에 전념하는 교회입니다.